

[트럼프가 던진 게임 이론]

축산물품질평가원 수급지원처

01)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대부분 국가는 상호관세 적용 유예, 미국과 중국의 휴전 합의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10% 관세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면서 협상 단계로 이행되었습니다. 대중 관세율 245%라는 상징적인 숫자의 관세가 중국의 모든 미국향 수출 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125% 상호관세는 대체로 적용되고 중국도 이에 맞서 관세 부과로 반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5월 10일 만남을 갖고 12일 상당한 진전을 거둔 합의문을 발표하며 미국과 중국은 일단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하였습니다.

게임이론으로 보는 협상과정, 슈타켈베르크 게임(Stackelberg game)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게임이론의 비협력 게임(non-cooperative game) 상황 중 슈타켈베르크 게임과 유사합니다. 전략적 불확실성 속에서 일본, 유로존, 한국 등은 파트너십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중국 이외의 국가들과 협상을 시작한 이유는 2026년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중간선거를 의식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은 수준이지만 취임 이후 공무원들의 해고, 다른 국가들과의 마찰, 경제 불안 등의 이유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영국의 선례에 이은 우리나라 협상의 주요 쟁점

영국은 미국과 첫 무역 합의를 체결하며 영국의 사례는 앞으로 다른 국가들의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미수출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은 10%로 유지했으나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의 관세 인하 혜택을 얻었고 이에 대해서 영국은 미국에 농축산물 개방, 미국산 항공기 대량 구매 등의 조치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 무역 협상은 영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관세율을 낮추려는 의도 하에 미국 측의 제안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의제는 1)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2) 산업 협력 및 투자, 3) 방위비 분담금, 4) 대중국 제재 동참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7월 8일까지 타결을 목표로 논의 중이며 새로운 정부가 협상의 마무리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에 대한 경제적, 안보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세인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관세정책에 따른 주요국 경기 전망 변화

4월 IMF 전 세계 경제전망 업데이트에서는 관세정책 본격화로 글로벌 경제성장을 둔화가 가시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승과 함께 소비자들의 심리는 크게 위축되어 향후 내수 부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월 ECB는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발표하였으나 대 EU 관세가 부과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3%p, EU가 보복할 경우 추가 0.2%p 하향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영향이 경감될 수 있으나 3월 ECB가 예상한 경제성장률의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일본 경제는 2024년 3분기부터 내수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으며 단칸 요소 활용지수가 잠재성장률과 실제 경제성장률간의 격차를 선형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25년 경기는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는 관세협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국가 중 하나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관세협상의 결과가 악화될 경우 대외 수요 감소에 따라 성장세가 더뎠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24년 4분기에 이어 2025년 1분기에도 5.4%로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외 수출의 회복에 의한 성장으로 최근 미국과의 상호관세 부과를 고려했을 때 2분기 이후로 성장세 둔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금리정책의 변화 양상

관세정책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미국 대중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확대되는 가운데 연준 파월 의장은 ‘파월 풋’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연준의 스탠스는 신중해졌습니다.

4월 ECB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유로존의 금리는 현재 2.25%이고 금리인하 사이클의 변곡점에 진입하여 2%로 기준금리 인하사이클을 우선 종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BOJ 당국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무역협상이 결렬되지 않는 한 4분기 금리 인상은 유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은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를 진행하였으나 실질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향후 무역협상을 통한 대외교역 상황 등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가 공급우위 전망, 곡물 가격의 불확실성 확대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국제유가의 포워드커브에서 백워드이션이 큰 폭으로 축소되어 6개월물 이후부터 일부 콘탱고가 출현해 석유시장의 잠재적인 ‘공급우위’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EIA와 OPEC, IEA의 2025년 전 세계 일평균 석유 생산 전망치는 소비 전망치를 상회하며 수급 상 ‘공급우위’를 전망하고 있으며, 자발적 감산을 증산으로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OPEC의 석유 생산 여력은 곧 잠재적인 ‘공급 오버행’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의 곡물 생산에서 일부 차질을 초래한 라니냐 기후 소멸로 곡물가격지수 레벨은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등에 대한 관세정책 강행은 곡물 중심의 미국산 농산물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고 무역 전쟁이 심화될 경우 미국산 곡물 가격의 하방 변동성 확대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3분기 기상이변 중립 전망이 우세한 점을 감안할 때 미국산 공급 개선 우위를 바탕으로 곡물가격의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02) 글로벌 환경 및 질병 이슈 점검

기후정책과 탄소 규제 강화 흐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연방 부처의 석탄 산업 차별 정책을 중단하고 신규 석탄 프로젝트 허가 및 자원 확대 등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석탄 대비 발전단가가 저렴한 발전원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전력시장에서 석탄 발전은 제한적이고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서 멀어진다 해도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극단적 반기후 정책으로 인해 친환경 투자 확대 트렌드 주도권을 중국이 쥐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탄소 배출량에 가격을 매겨 감축을 유도하는 탄소 가격제가 보편화 되는 동시에 탄소 가격이 높은 지역의 기업들이 사업을 이전하는 탄소 누출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EU는 탄소 누출을 막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확정하고, 2026년 1월부터 수입품에 대해서 EU 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탄소 가격을 부과할 예정이며 생산국에서 이미 탄소 가격을 부담한 경우 EU에 부담해야 하는 탄소 관세가 경감되는 구조입니다. CBAM이 적용되는 6개 품목 중 철강 제품이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관찰될 전망입니다.

탄소 가격이 낮거나 가격제가 없는 국가가 탄소집약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탄소 관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탄소 가격이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가격제가 보편화되는 동시에 탄소 장벽이 높아지며 나타날 탄소 가격 동조화 현상은 EU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가축질병 확산, 인체감염 사례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동절기 증가했던 건수는 3월 들어 감소했고 독일, 이탈리아 등 중부 유럽에서 야생멧돼지 ASF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고병원성 AI는 감소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쥘소,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포유류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03) 주요 축산국 동향

주요국 축산물 수급 및 수출 동향 변화

최근 USDA 전망에 따르면 2025년 2분기와 3분기 미국 우육 공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3%, 1.3% 감소를 전망하였고 낮아진 공급량과 높은 가격, 환율 등을 고려할 때 미국산 수입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연간 누적 EU의 돼지 도축두수는 2023년 대비 약 0.4% 감소하였는데 폴란드(+5.5%) 도축두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네덜란드(-11.2%) 도축두수가 크게 감소한 영향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돼지 사육을 중단하고 있으며 2023~2028년 Lbv를 통해 모든 축종에 대해서 자발적 폐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유럽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2023년 대비 중국(-22.5%), 일본(-15.8%), 등으로 상위 국가로의 수출량이 감소한 반면, 필리핀(+17.4%), 한국(+12.5%) 등으로 수출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호주 생우 가격은 최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호주축산공사(MLA) 전망에 따르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도축두수와 수출량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수출량 감소를 감안할 때 2025년에도 호주산 소고기 수입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호주산에 대해 10%, 브라질에 대해 10%+26.4%(쿼터고관세)를 부과하여 상호관세 부과 이후 호주의 수출 다각화 추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